



◇ 세계 농아 불링 선수 대회에 한국대표 선수로 참가한 대한 불교 장애인 포교회의 이태원, 홍기범 불자(사진 왼쪽부터).

농아불자 불링선수 4명 세계대회 상위권 '쾌거'

명상으로 마음 다스려 스트라이크 '몸짓 환호'

얼개의 하얀 편이 와르르 쓰러지는 소리에 '스트라이크'를 몸짓으로만 외치는 건강한 불자 농아불링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첫 출전, 상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안고 돌아왔다.

지난 6일~8일 대만 대북에서 장애한계에 도전하는 첫 '세계농아 불링 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불자선수 홍기범, 이태원, 조대용, 최귀복씨가 바로 그들.

지난해 7월 열린 전국 농아 불링선수권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 세계대회 출전티켓을 따낸 10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이 대한불교장애인 포교회 회원들이다.

이들 농아불링선수들은 세계 11개국 1백50여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10위권내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5년전 원심회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명생활을 해 온 이들은 한달에 두번씩 불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그라미라는 친목 불링모임을 해 왔다.

또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 참석해 듣지 못하는 대신 수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기도 했다.

"처음 건강인(정상인)들이 불링하는 모습을 무심히 보다가 직접 불링장을 찾아 불링을 배우게 됐다"고 수화로 말하는 홍기범씨는 불링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스포츠맨. 그래서 홍씨는 농아인 야구팀의 감독을 맡아 지도하는 등 다른 농아인들과 스포츠를 통해 삶을 나누기도 한다.

"기회가 닿는다면 초보자들에게 불링의 기초차이부터 모

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홍씨는 말했다.

"체력단련을 위해 배운 불링으로 세계대회까지 출전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불자 농아 불링선수 홍기범, 이태원, 최귀복, 조대용씨는 입을 모았다.

대표선수로 선발된 뒤 나머지 대표선수들과 한달간의 합숙훈련을 받기도 했던 이들은 "항상 시합에 임하기 전에 법회시간에 배운 명상법으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것이 경기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세계대회 우승 자리를 놓쳐 못내 아쉽다"고 말하는 이들은 2년뒤 대만에서 열리게 될 세계대회에서는 꼭 해내겠다고 소리를 높여 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화이팅!"

이은자 기자

방송사 기독교 편향 심각

성탄절 특집 초파일의 4배... 불교소재 개발 시급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의 방송비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부처님 오신날의 무려 4배 이상 많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방송사들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고 있음이 지적됐다.

각 방송사 편성표, PC통신 방송 편성표, 보리방송모니터 회 프로그램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인 5월 6~7일과 크리스마스인 12월 24~25일 방영된 TV특집은 총 7회와 31회로 크리스마스 특집방송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 특집방송 편성은 특선영화, 다큐멘터리, 법요식실황중계 등에 그친데 반해 크리스마스 때는 보도 영화,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찬송가부르기, 연주회, 드라마, 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2 TV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에는 단

한편의 특집방송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크리스마스에는 5편의 특집을 편성한 것도 공정성을 잃은 대표적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방송가 일부에서의 "영화화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타스님은 "전통문화인 불교적 소재의 발굴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풍부하다"면서 "불교 TV에 제작비를 지원해 드라마, 어린이용 만화 등을 제작해 이를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청소년지도자 모임 준비 개별 활동지양 정보교류등 활성화

대구·경북지역을 통괄하는 불교청소년 지도자모임이 결성될 전망이다.

21세기 청소년포교를 위한 대구·경북 청소년지도자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불국사 심검당에서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성수스님, 청소년지도자 6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모임은 그간의 개별적 활동을 지양하고 청소년지도자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정보교

류확대, 전문성 제고 및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대구·경북지역을 대구광역시,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등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임시 실무자모임을 구성할 것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임시대표로 법명스님(경주 향림사)을 선출했다.

조계종 신년하례식 4일 통도사 정변전

조계종은 불기 2540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월하종정스님의 주석처인 통도사 정변전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교육원, 포교원 원장스님, 각 부·실장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식에서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나라가 역사적 격동의 시기를 거친 지난해 종단은 종토세 등 현안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발전의 위대한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례식에는 월하종정스님이 건강관계를 불참했다.

10·27법난 진상규명 재촉구

조계종 특위, 국무총리에 조계종 10·27 법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9일 국무총리에게 '80년 10월 27일부터 전개된 소위 불교계 정화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서'를 전달하고 10·27법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위는 촉구서를 통해 10·27 불교계 수사의 발단

△불교계 정화실무대책반편성 운영 △부정축재 재산환수 보도경위 △80년 10·30 전국사찰 수색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특별위는 8일 소위원회회를 갖고 △2월부터 가해자, 피해자 관련 청구 △10·27 법난 백서 발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청주 BBS 사옥 3월 기공

법당등 마련 불교센터로...용담스님 10억원 출자



◇ 용담스님

불교청주방송국국준비위(위원장 월성스님)는 BBS 신축사옥(연건평 4백여평 지하1층 지상4) 건물조감도를 마련하고 3월초 건물기공식을 갖기로 하는 등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 청주방송은 지난 9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되는 방송국 사옥은 3~4

층의 불교방송 시설을 비롯 법당과 공개홀, 신명단체사무실 등을 마련해 청주불교 종합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용담스님(전 법주사 기국국장)이 10억원을 출자기로 해 1월 하순에 열리는 운영위에서 대주주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괴산 다보수련원 6월 개원

진흥원, 96예산 1억4천여만원 책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든각)은 오는 6월초 개원하는 충북 괴산의 다보수련원을 교사 불교연수 수행단체지도자연수 등 교육사업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불국토 건설" 발원

부산불교련·신도회 하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와 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 5일 코모도호텔에서 공동으로 불교계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스님, 신명단체장을 비롯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안석태 부

산지방방위장, 광정출, 김진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하례회는 찬불가, 신년교례, 법어,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지역 불교계 첫 신년 공식모임인 이날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 평화, 공동, 복지의 불국토 건설에 힘을 쏟을 것'을 발원했다.

인더그라운드 가수이자 BBS라디오 가요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를 진행하기도 했던 김광석씨가 지난 6일 새벽 마포구 서교동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김광석씨 빈소에는 법



'맑고 향기롭게' 본부 2월9일 수안사서 5재

정스님 청학스님 등이 조문 영가를 천도했다.

김광석씨는 그동안 '나의 노래' '일어나' 등의 히트곡을 남기는 등 활발한 대중음악 활동을 해왔으며 법정스님이 추진하는 맑고향기롭게 운동에도 동참했었다.

불자가수 김광석씨 타계

김광석씨의 장례식은 지난 8일 경기도 벽제화장장에서 치러졌으며 그의 유골은 서울 서초동 수안사에 안치됐다.

한편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는 오는 2월 9일 김광석씨의 5재를 집전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

불국토 산하 '선우마을'... 자발 참여 유도

조계종이 올해를 '불교 청소년의 해'로 정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불국토 산하 '선우마을(회장 법선)'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8일 부산 개금사회 복지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성환(서면중 1년) 등 부산지역 중학생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발대식에서 법선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적 자원봉사에서 탈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려는 주인공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동국·위덕 종립대 대입 경쟁률 높아

96년도 대입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위덕대(총장 손제석)의 지원현황결과 각 4.5:1과 11.1:1로 집계돼 종립대학들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는 사범대 체육교육학

과가 24.1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열별로 모집한 위덕대는 공학계열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동국대와 위덕대는 오는 18일 면접을 시행하며 동국대는 27일 이전 위덕대는 2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맑고 향기롭게...' 을 사업 가정문제해결 주력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올해 주제를 '맑고 향기로운 우리집'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가족과 가정의 문제들을 점검, 그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가정 주제의 정기강연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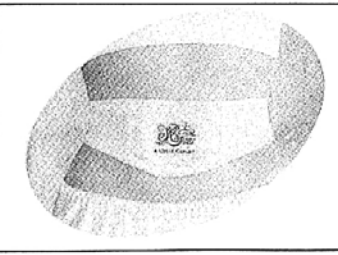
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여행 △가족 수련회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설문조사 및 대화마당 △자녀와 부모들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을 발표키로 했다.

법정스님 강연회는 전주(1월 27일) 서울(3.6) 부산(3.29)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명칭도 '맑고 향기롭게 모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서울모임 사무국장에 진정스님(동국대 비구니회장)을 임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맑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태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배꼽이 고통 받는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예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우리/콩 으로 만든 우리/된/장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콩

우리 콩 우리 된장 가공공장에서는 우리 콩 살리기 운동본부와 농민과의 계약체제를 통하여 우리 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콩이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경북 청송에서 우리 콩으로 재래식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와 우리 콩을 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함께 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배달 가능(지방 택배로 별도)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 지정

우리 매주 서울 총판 ☎ 553-0089, 558-004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0-36

소비가 가격 1말(루) 4개
값 32,000원